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 비교

유 문 숙¹⁾ · 박 진 희²⁾ · 김 용 순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선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며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라고 한다(Ahn, Yim, & Kim, 2002).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가 넘어 UN이 정하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9년 14%, 2030년에는 22%가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예정으로 새로운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생산활동인구 7.9 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추리되어(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사회적으로 큰 부담으로 대두되며 이에 따른 부양세대와 피부양세대간의 갈등이 예견된다.

근본적인 노인 문제는 단지 노인의 인구수가 급증한 것만은 아니며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사회 안에서 노인에 대한 의식의 변화이다.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과거에서 노인들이 누렸던 사회적인 특권과 높은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해 나가기 어려워, 나아가 종종 연령차별로써 알려진 편견에 기반을 두어 노인은 취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의 노인들은 이전의 노인들보다 더욱 건강하고, 학력이 높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많아졌지만 여러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Falchikov, 1990; Kim, 2004).

노인차별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야기된 현상으로 사회구조는 일부 형태의 편견이나 차별에 기반을 두어 생각과 행동을 제도적으로 유지 또는 강화시킨다. 개인이 속한 문화가 연령을 어떻게 인지하고 노인을 어떻게 보는가의 기준이 보다 크게 작용하며, 이러한 문화적 신념이 다른 연령 집단들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적 생각을 갖게 하고 이것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초래한다(Park, 2001). 특히 우리나라는 65-69세 연령층에 비해 80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의 증가가 더욱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Cheon et al., 2001; Song, 2000),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경제적 대비책이 서구사회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노인에 대한 무관심과 소외현상은 노인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며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등 노년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Song, 2000; Kim, 2004). 이렇듯 연령차별적 현상은 전 사회에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노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젊은 세대들도 자신의 노화과정을 스스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전 연령층이 고루 발전하는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Han, 2000; Yang, Oh, Kim, & Baek, 2002). 특히 한국의 현대사회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사회적, 역사적 큰 변화를 거친 사회이므로 세대 간의 차이가 커져 더욱 세대간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라고 지적하고 있다(Han et al., 2006).

주요어 : 간호사, 간호대학생, 노인, 이미지, 태도

1)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2)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전임강사

3)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ysk48@ajou.ac.kr)

투고일: 2007년 7월 23일 심사완료일: 2007년 9월 20일

노인에 대한 의식을 결정짓는데 기본이 되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맞추어 달려져 가며 그러기에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에서 노인간호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간호사의 중요성 및 수요가 급증함을 감안할 때 노인간호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노인에 대한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는 노인간호를 실시해야 하는 간호사에게는 우선적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대상자들이 받는 간호의 질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노인에 대해 올바르게 긍정적인 태도를 수립하도록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Coutney, 2000; Edward & Aldous, 1996; Yang et al., 2002). 또한 부각되고 있는 노인간호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부과정에서부터 노인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노인간호를 제공하는 일반간호사 및 젊은 세대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노인간호의 질적인 향상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연구 목적

-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한다.
-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수도권에 소재 일 종합병원에서 노인 환자가 많은 일반병동의 간호사와 일 간호대학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임의표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서면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수거하였다. 총 응답자는 간호사가 90명, 학생은 79명이었으며 그 중 자료로써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간호사 75부, 학생 7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노인에 대한 감정과 견해를 측정하는 것으로 Han(2004)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0개의 상반되는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 7점 척도로 ‘매우 긍정적’은 1점으로 ‘매우 부정적’은 7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문항 중 6.7.11.12 제외한 것은 의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역 코딩 후 통계처리 하였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0점(가장 부정적 태도)에서 140점(가장 긍정적 태도)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각 항목이 7점 범위를 가지므로 3.5에서 4.5까지를 중립적인 태도의 범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총점에서는 70점(3.5×20)과 90점(4.5×20)사이의 점수가 중립적인 범위를 나타낸다. 즉 70이하의 점수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90이상은 긍정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에 대한 행동으로 Won(2004)이 개발한 노인에 대한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17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자들은 개인이 노인에 대하는 행동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답을 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를 역 코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최소 17점(가장 부정적인 태도)에서 최고 68점(가장 긍정적 태도)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척도의 각 항목이 4점 범위로 본 연구에서는 2점에서 3점 사이를 중립적인 태도로 2점 이하를 부정적 태도, 3점 이상을 긍정적 태도로 구분하였다. 즉 총점의 경우 34점과 51점 사이를 중립적 태도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으며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차이 검증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 점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비교

<Table 1> Nurses and nursing students' image toward aging

(N=149)

Contents	Nurses (n=75)	Nursing students (n=74)	t(p)
	M±SD	M±SD	
Wise - foolish	4.81±.75	4.66±.63	-1.370(.173)
Good-looking - bad-looking	4.79±.76	4.62±.62	-1.497(.137)
Couth - uncouth	4.89±.82	4.82±.77	-0.548(.585)
Healthy - sick	5.25±.92	5.32±.74	0.449(.654)
Calm - fidgety	5.27±.79	5.19±.84	-0.556(.579)
Bright - stupid	4.11±1.03	4.27±1.00	0.990(.324)
Knowledgeable - ignorant	4.31±.68	4.45±1.00	1.038(.301)
Useful - useless	5.00±.84	4.99±.94	-0.094(.925)
Capable - dull-witted	4.92±.75	4.92±.85	-0.017(.987)
Trustworthy - untrustworthy	4.96±.86	5.07±.87	0.762(.447)
Good - bad	4.59±1.18	4.56±1.18	-0.129(.897)
Diligent - lazy	5.07±1.13	5.29±1.10	1.199(.233)
Interesting - boring	5.00±.90	4.60±.72	-2.957(.004)
Brave - coward	4.63±.75	4.67±.78	0.354(.724)
Uncomplaining - complaining	5.03±.84	4.82±.80	-1.515(.132)
Responsible - irresponsible	4.96±.97	4.96±.84	-0.007(.994)
Cheerful - gloomy	4.85±.77	4.82±.77	-0.249(.804)
Kind - unkind	5.01±.83	4.92±.76	-0.730(.467)
Generous - selfish	5.33±.88	5.10±.83	-1.687(.094)
Honest - false	5.05±.88	4.89±.95	-1.080(.282)
Total	97.28±6.81	96.53±7.07	-0.654(.514)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점수는 <Table 1>과 같다. 총점 140점에서 간호사의 평균 점수는 97.28점(±6.81)점, 간호대학생의 평균 점수는 96.53점(±7.07)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654$,

$p=.514$).

문항별로 살펴보면, 간호사의 경우 '건강하다', '침착하다', '너그럽다'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똑똑하다', '유식하다'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경우도 간호사와 비슷하게 '건강하다', '침착하다', '부지런하다', '너그럽다'

<Table 2> Nurses and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N=149)

Contents	Nurses (n=75)	Nursing students (n=74)	t(p)
	M±SD	M±SD	
1. I take a slight joke about old people	3.53±.50	3.56±.53	0.335(.738)
2. I look down on old people	3.33±.50	3.37±.57	0.416(.678)
3. I think old people is unbelievable	3.23±.54	3.26±.60	0.359(.720)
4. I don't care old people	3.23±.83	3.26±.75	0.259(.796)
5. I don't understand old people.	2.85±.59	2.73±.53	-1.381(.169)
6. I feel being with old people is inconvenience	3.11±.63	2.81±.62	-2.919(.004)
7. It is not a big thing for me because old age make old people sick	3.11±.73	3.30±.68	1.680(.195)
8. I don't want to be with old people	3.13±.80	3.01±.83	-0.899(.370)
9. I think it is difficult to have a conversation with old people.	3.01±.73	2.82±.77	-1.577(.122)
10. I move a chair from old people in cafe or restraints.	3.59±.60	3.62±.70	0.279(.781)
11. I think old people are unable to hear	3.52±.67	3.45±.71	-0.602(.548)
12. I think old people are unable to understand	3.31±.70	3.29±.70	-0.166(.869)
13. I don't see TV program presenting old people	3.21±.87	3.34±.95	0.863(.390)
14. I think old people going out in rush-hour inconvenient	3.56±.74	3.68±.64	1.096(.275)
15. I feel annoying old people step into my life	3.29±.61	3.23±.70	-0.562(.575)
16. I use terms or words which are too difficult for old people to understand to them	3.37±.56	3.23±.68	-1.372(.172)
17. I pretend to sleep not to offer my seat to old people in a bus or subway	3.33±.58	3.32±.66	-0.179(.858)
Total	55.72±6.09	55.29±6.40	-0.421(.674)

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뚝뚝하다’, ‘유식하다’ 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재미있다’ 문항에서는 간호사(5.00점)가 간호대학생(4.60점)에 비해 점수가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t=-2.957, p=.004$), 그 외 다른 문항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간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를 살펴보면<Table 2>, 총 점 68점 만점에 간호사의 평균 점수는 55.72점(± 6.09)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의 평균점수는 55.29점(± 6.40)으로 중립적인 범위(34점-51점)보다 높았으며, 그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421, p=.674$).

문항별로 살펴보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간호사의 경우 ‘카페나 식당 등에 들어가면 가능한 노인이 없는 다른 장소로 옮긴 적이 있다.’(3.59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의 경우 ‘노인이 출퇴근시간에 외출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라 생각한 적이 있다.’(3.68점)이었다. 가장

부정적 태도를 보인 문항은 간호대학생(2.73점)과 간호사(2.85점) 모두 ‘노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이 있다.’ 이었다. ‘노인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문항에서 간호사는 3.11점으로 간호대학생 2.81점보다 높았으며 그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919, p=.004$). 그러나 이외 모든 문항에서 두 집단간의 태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노인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r=0.299, p=.007$) 및 간호대학생

<Table 3> Correlation between ima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N=149)

	Attitude			
	Nurses (n=75)		Nursing students (n=74)	
	r	p value	r	p value
Image	0.299	.007	.378	.001

<Table 4> Ima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9)

Variables	Categories	Nurses(n=75)						Nursing students(n=74)					
		n	Image		Attitude		n	Image		Attitude			
			M \pm SD	t or F (p)	M \pm SD	t or F (p)		M \pm SD	t or F (p)	M \pm SD	t or F (p)		
Age(years)	≤ 25	17	97.16 \pm 7.72	0.014	55.88 \pm 6.13	0.134							
	26-30	50	97.54 \pm 8.16	(.986)	55.17 \pm 6.65	(.875)							
	30<	8	97.75 \pm 7.54		56.13 \pm 5.44								
Grade	Third						34	96.18 \pm 7.25	-0.626	56.24 \pm 4.28	0.858		
	Fourth						40	97.26 \pm 7.73	(.533)	55.07 \pm 6.90	(.394)		
Marriage	Unmarried	66	97.49 \pm 7.87	-0.025	55.03 \pm 6.53	-1.528							
	Married	9	97.56 \pm 6.98	(.980)	58.44 \pm 3.97	(.131)							
Religion	Christian	26	96.69 \pm 6.12	1.554	56.27 \pm 6.50	1.112	24	97.96 \pm 7.48	2.470	54.67 \pm 7.16	0.662		
	Catholic	14	97.86 \pm 5.87	(.208)	57.21 \pm 5.66	(.350)	11	93.73 \pm 4.52	(.069)	55.73 \pm 7.09	(.578)		
	Buddhism	5	91.00 \pm 4.58		55.60 \pm 6.66		10	96.30 \pm 5.71		54.40 \pm 6.55			
	None	30	98.61 \pm 9.34		53.94 \pm 6.56		29	95.48 \pm 6.55		56.65 \pm 3.86			
Career(years)	≤ 2	17	97.12 \pm 6.59	0.463	56.35 \pm 5.51	2.387							
	2-5	35	98.31 \pm 9.00	(.631)	53.90 \pm 7.29	(.099)							
	5<	23	96.39 \pm 6.15		57.30 \pm 4.62								
The fate of grandparents	Alive	45	96.87 \pm 7.88	-0.856	55.28 \pm 6.59	-0.106	63	97.48 \pm 7.54	1.819	55.28 \pm 6.02	-1.227		
	Dead	30	88.43 \pm 7.68	(.395)	55.43 \pm 5.86	(.916)	11	94.09 \pm 6.46	(.073)	57.64 \pm 4.90	(.224)		
Living experience with elderly	Yes	38	97.05 \pm 6.50	-0.514	55.48 \pm 6.19	0.080	43	97.55 \pm 7.39	1.051	56.32 \pm 5.73	1.270		
	No	37	97.95 \pm 8.86	(.609)	55.34 \pm 6.63	(.936)	31	95.72 \pm 7.60	(.297)	54.59 \pm 6.00	(.212)		
Relationship with the elderly	Close	74	97.20 \pm 6.73	-0.299	56.20 \pm 6.90	0.974	42	95.79 \pm 6.43	-1.317	56.65 \pm 4.66	1.823		
	Unclose	75	97.73 \pm 8.51	(.766)	54.80 \pm 5.92	(.333)	32	98.06 \pm 8.61	(.192)	54.21 \pm 6.99	(.072)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elderly	Happy	80	97.15 \pm 6.77	-0.384	56.31 \pm 6.75	1.231	43	95.80 \pm 6.51	-1.378	56.5 \pm 4.616	1.747		
	Unhappy	69	97.82 \pm 8.64	(.702)	54.55 \pm 5.91	(.222)	31	98.19 \pm 8.62	(.172)	54.19 \pm 7.18	(.085)		
Presence of significant elderly	Yes	46	94.94 \pm 6.93	-1.556	58.63 \pm 5.04	2.076	30	97.64 \pm 7.66	1.258	56.84 \pm 4.86	1.609		
	No	103	97.90 \pm 6.50	(.125)	54.80 \pm 6.78	(.042)	44	95.41 \pm 6.52	(.213)	54.71 \pm 5.43	(.113)		
Experience of education	Yes	48	96.77 \pm 6.18	-0.495	56.42 \pm 5.72	1.297							
	No	26	97.75 \pm 8.61	(.622)	54.19 \pm 5.63	(.199)							

($r=0.378$,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 비교

부가적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Table 4>, 간호대학생은 학년, 종교, 조부모의 생존여부, 노인과의 거주 경험, 의미있는 노인 존재 유무, 노인과의 관계나 친밀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사의 경우 의미 있는 노인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076$, $p=.042$). 그러나 연령, 경력, 종교, 결혼유무, 조부모 생존여부, 노인과의 거주 경험, 노인과의 관계나 친밀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고찰을 하고자 한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총 140점 만점에 간호사는 평균점수 97.28점, 간호대학생은 평균점수 96.53점으로 중립적인 범위(70점-90점)보다 높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본 도구와 동일한 척도를 이용한 Kim(2004) 연구에서의 80.53점과 비교시 높은 점수이다. 또한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유사한 Sanders, Montgomery, Pittman와 Balkwell (1984)의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Yim, Lim와 Kim(2002) 연구 및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Yang, Oh와 Kim(2002)의 연구결과에서 중립적인 점수를 보였다는 결과와 비교시 높은 점수이다. 이는 최근 노인간호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노인의 이미지 및 노인 간호 영역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증가한 효과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가 일개 학교와 병원의 학생과 간호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계속적인 추후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지에 관한 문항별로 보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모두 모든 문항에서 중립적인 점수(3.5-4.5점)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똑똑하다', '유식하다' 두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4.5점

이상의 긍정적인 이미지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들을 건강하고 침착하며 부지런하고 느그럽다고 생각하는 문항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 등(2002) 연구결과에서 대상자들이 노인을 현명하고,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고, 관대하고, 호의적이고, 좋고, 그리고 인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비활동적이고, 지루하고, 비생산적이며, 아프고, 융통성이 없으며, 의존적이고, 보수적이며, 매력적이지 못하며, 그리고 불평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결과나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004)의 연구에서 노인을 허약하고 불만이 많고 촌스럽고 우울하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연구결과에 비해 본 연구 대상자들은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노인 간호를 주로 하는 병동의 간호사이거나, 노인 간호 실습을 이수한 간호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사료된다. Kim(2004)의 연구에서도 노인병원 간호사들이 일반간호사에 비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노인을 간호한 경험을 많이 가진 간호사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은 똑똑하지 못하고 무식하다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보편적으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노인이란 매력 없고, 무능력하고, 신체적으로 약하며, 성적으로 무관심하고, 어리석은 점에서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Park, 2001) 것에 기인할 것이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에서는, 총점 68점 만점에 간호사의 평균 점수는 55.72점, 간호대학생의 평균점수는 55.29점으로 그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같은 도구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2004) 연구의 56.41점보다 다소 낮은 것이나 두 집단 모두 중립적인 범위(34점-51점)보다 높은 점수로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별로 보면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모두 '노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이 있다.', '노인과 대화하거나 교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노인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문항의 점수가 낮아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노인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족 문화가 계속 증가된 핵가족화 현상이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에서 노인을 배제시키면서 노인과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또는 감소시켰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에서 노인과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주요 변인이라고 주장한다(Kim, 1997; Lee, 1989). 즉 노인과 많이 접촉하는 경험을 가질수록 노인을 더 가깝게 인지하고, 잘 이해하며,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노인 및 노화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Park, 2001; Yang et al., 2002).

또한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간호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노인간호학 및 실습을 통해 교육을 받은 간호대학생과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노인간호를 한 간호사간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간호사와 간호대학생간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 성립은 학부과정에서의 적절한 교육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긍정적인 태도 성립을 위한 학부과정에서의 간호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호교육 과정에서 노인간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며, 노인간호에 대한 교육은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간호에 대한 요구에 비해 부응할 만큼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Cheon et al., 2001; Song, 2000). 많은 학교에서 노인간호학이 전공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국가고시 과목도 아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미약하며, 노인간호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적어 간호학생들이 학부과정에서 노인간호에 노출된 기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학부과정에서의 적절한 노인간의 및 실습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연구결과를(Haight, Christ, & Dias, 1994; Karner et al., 1998; Kim, 2004; Yoon & Han, 2004) 감안할 때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 및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Kim, 2004; Lee & Park, 2002).

부가적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지 간호사에서 의미 있는 노인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지지 받고 있는 변수들은 사회 인구학적 요인(연령, 성별)과 관계적 요인(동거경험유무, 접촉의 양과 질, 부모태도)등이 있는데(Kim, 2004; Park, 2001, Williams, Anderson, & Day, 2007; Yang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나 개인의 경험 변수들의 일부분만을 조사하였으며 대상자 수가 적었다는 한계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이미지와 태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와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모두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Kim (2004)의 연구에서 노인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와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살펴본 Kim와 Chung(2001)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노인관이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치관 형성 프로그램 등의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를 측정, 비교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수도권 소재 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75명과 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4학년 간호대학생 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6년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었다. 연구도구를 보면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Han(200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는 Won(2004)의 노인에 대한 행동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총점 140점에서 간호사의 평균 점수는 97.28점(±6.81), 간호대학생의 평균 점수는 96.53점(±7.07)으로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이는 없었다.
-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는 총점 68점에서 간호사의 평균 점수는 55.72점(±6.09), 간호대학생의 평균점수는 55.29점(±6.40)으로 두 집단 모두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그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노인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에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간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 간호의 중요성 부각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과정에서부터 적절한 교육을 통해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궁극적으로 노인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앞으로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이미지 또는 인식을 바꾸는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해주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안한다.
-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상자 및 대단위 군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를 조사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성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간호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

References

- Ahn, O. H., Yim, H. K., & Kim, H. J. (2002). A study on the image of elderly people in the ageing society. *J Korean Life Science*, 11(4), 347-355.
- Cheon, S. J., Kong, E. S., Kim, G. P., Kim, N. C., Kim, J. H., Kim, C. G., Kim, H. K., Roh, Y. J., Ahn, S. Y., Lee, K. J., Lee, Y. H., Cho, N. O., Cho, M. O., & Choi, K. S. (2001). Survey of the gerontological nursing course. *J Korean Acad Nurs*, 31(5), 808-817.
- Coutney, M., Tong, S. H., & Walsh, A. M. (2000). Acute-car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atients: A literature review. *Int J Nurs Pract*, 16(2), 62.
- Edward, M. J., & Aldous, I. R. (1996). Attitude to knowledge about elderly people: A comparative analysis of students of medicine, english and computer science and their teachers. *Med Educ*, 30(3), 221-225.
- Falchikov, N. (1990). Youthful ideas about old age: An analysis of children's drawings. *Int J Aging Hum Dev*, 31(2), 79-99.
- Haight, B. K., Christ, M. A., & Dias, J. K. (1994). Does nursing-education promote ageism?. *J Adv Nurs*, 20, 382-390.
- Han, J. R. (2000).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J Korean Gerontol Soc*, 20(3), 115-127.
- Han, J. R. (2004).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attitudes toward age groups. *J Korean Gerontol Soc*, 24(3), 197-210.
- Han, J. R., Lee, K. Y., & Won, Y. H. (2006).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attitude between the youth and the elderly. *J Korean Gerontol Soc*, 26(2), 381-402.
- Karner, K. J., Rheinheimer, D. C., Delisi, A. M., & Due, C. (1998). The impact of a hospital-wide experiential educational program on staff's knowledge. *J Contin Educ Nurs*, 29(3), 100-104.
- Kim, H. K. (1997).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their perceptions of generational gap between their grandparents and themselves. *J Home Manag*, 15(4), 65-79.
- Kim, J. Y. (2004). *Nurses'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related to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S. Y., Yang, K. M., Oh, H. Y., & Kim, J. S. (2002). Nursing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Korean Gerontol Soc*, 22(3), 23-30.
- Kim, Y. A., & Chung, S. A. (2001). Adolesc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J Home Manag*, 19(5), 35-45.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Seoul: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Lee, S. J. (1989). Attitude toward the old people of different age groups through the study of psychological analysis. *J Korean Gerontol Soc*, 9(1), 79-91.
- Lee, Y. S., & Park, K. R. (2002). Effects of an undergraduate gerontology course of the students' attitudes about older adults a quasi-experiment. *J Korean Gerontol Soc*, 21(3), 29-41.
- Park, K. R. (2001). A review on stereotypes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Inse University*, 16(1), 1-12.
- Sanders, G. F., Montgomery, J. E., Pittman, J. F., & Balkwell, C. (1984).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Appl Gerontol*, 3(1), 59-70.
- Song, M. S. (2000). The gerontological nursing system in Korea. course. *J Korean Nurses Association*, 39(5), 67-70.
- Williams, B., Anderson, M. C., & Day, R. J. (2007).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aging: Comparison of context-based learning and a traditional program. *Nurse Educ*, 46(3), 115-120.
- Won, Y. H. (2004).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behavior toward the elderly*. Unpublished manuscript.
- Yang, K. M., Oh, H. R., Kim, J. S., & Baek, Y. J. (2002).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Chosun Medical Journal*, 27(1), 146-156.
- Yim, Y. S., Lim, J. S., & Kim, G. S. (2002).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Korean Gerontol Soc*, 22(1), 31-46.
- Yoon, H. S., & Han, M. K. (2004). Effect of clinical experiences at a nursing home on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Gerontol Nurs*, 1(2), 256-262.

Image and Attitude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Yoo, Moon-Sook¹⁾ · Park, Jin Hee¹⁾ · Kim, Yong-Soon¹⁾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bout the image of aging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Method:** The instruments in this study were used questionnaires developed by Han and Won. The subjects were 75 nurses and 74 nursing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y. second to 30th, 2006.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SPSS Win program. **Results:** The level of the image of aging was relatively positive between nurses and nursing students. The level of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showed relatively high either. Their image of aging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and curriculum in nursing school to increase the positive image of aging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Key words : Elderly, Image, Attitude, Nurse, Stude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Yong-Soon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5 Woncheon-dong, Yongtong-gu, Suwon 442-749, Korea

Tel: 82-31-219-7010 Fax: 82-31-219-7020 E-mail ysk48@ajou.ac.kr